

다람쥐와 청설모는 어떻게 다른가



곽수동
 경상대학교 명예교수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sdkwak123@hanmail.net



다람쥐와 청설모는 동물 분류에 있어서 같은 청서과에 속하며 생활하는 것도 비슷하고 우리나라 어딜 가나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다람쥐는 애완동물을 취급하는 상가에서는 항상 쳇바퀴를 돌리듯 재롱을 부리며 앵무새 등과 같이 맨 앞쪽에 진열되어 있다.

그러나 수의사가 진료한 예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흔히 청설모는 다람쥐를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렇만은 않다.

외형을 보면 우리나라에 많이 서식하는 다람쥐의 학명은 *Tamias sibiricus*이고 외형은 등에 갈색 바탕에 흰색이 5개의 세로줄로 된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고 귀는 짧고 꼬리는 북실북실하게 털이 나 있다. 눈은 크고 검은색이고 몸길이 15cm정도 꼬리길이는 10cm정도 이고 몸무게 80-100g 정도이다.

청설모는 학명이 *Sciurus vulgaris*로서, 몸 전체 색깔이 대개 검거나 짙은 회색이고 다리와 귀 꼬리의 털은 더 길며 몸길이는 25cm 꼬리길이는 21cm 정도이고 몸무게는 230-350gm 정도로 다람쥐 보다 더 크다

번식시기는 다람쥐는 4월 중순부터이고 1회에 보통 4~6마리씩 연1~2회 새끼를 낳고 청설모는 2월경부터 매회 3~4마리씩 연 2회의 새끼를 낳는다.

삶의 근거지는 다람쥐는 저지대나 고산지대 산림 속 나무위에서 활동을 한다. 나무에 잘 오르지만, 네다리와 발가락이 짧아 나무에 기어오르는 것보다 땅에 구멍을 파고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낮에 나무에 올라가서 먹이를 찾아다니고 밤에는 나뭇구멍이나 돌구멍에서 쉬기도 하는데, 보통은 땅속에 굴을 파서 삶의 근거지로 하고 있다.

청설모는 저지대나 고산지대 산림 속 나무위에서 주로 활동



을 하며 나무 가지 사이에 까치집 모양으로 집을 짓고 산다.

식성은 다람쥐는 솔방울, 호두, 밤, 도토리, 잣나무, 참피나무, 북가시나무 등의 씨와 땅콩, 옥수수, 호박, 오이, 수박씨 뿐 아니라 곤충도 잡아먹고 풀잎도 먹는 잡식성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개구리나 뱀까지도 잡아먹는 잡식성이다. 청설모도 다람쥐와 같이 호두, 도토리, 밤, 잣, 소나무 솔방울 등의 씨앗을 먹이로 하지만 풀은 거의 먹지 않고 섬유질은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청설모가 다람쥐를 잡아 먹는다는 이야기는 사실만은 아니다.

천적은 다람쥐나 청설모는 다 같이 족제비, 담비, 삿, 오소리, 너구리와 같은 중형 포유류와 수리부엉이, 올빼미나 참매와 같은 맹금류 등의 천적을 피해야 하며 살아야 한다.

겨울나기를 위해 가을이 되면 다람쥐는 겨울잠인 동면 준비를 하기 위해 먹이를 구해서 입안에 볼 주머니에 집어넣어 집으로 가져가서 굴속에 저장해 놓는다. 굴은 여름에 살던 굴보다 더 깊게 파고 굴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어 잡자는 방과 먹이 저장고, 화장실 등을 각각 구분해 놓는다. 겨울에는 굴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때때로 배가 고프면 겨울잠에서 깨어나 저장해 둔 먹이를 먹고 다시 겨울잠을 잔다.

그러나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고 가을에 긴 털로 털갈이를 하고, 추운 겨울에도 먹이를 구하는 활동을 한다. 가을이 되면 입안에 볼 주머니가 없어 먹이를 하나씩 물고 와서 등지나무 근처의 땅 속 바위틈 나무 틈새나 땅 밑에 먹이를 감추어 두었다가 겨울에 먹이가 부족할 때 찾아 먹는다. 그러나 먹이를 저장해둔 곳이 여러 군데라서 숨겨둔 먹이를 절반도 채 찾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하니 식물의 씨앗을 다른 곳에 옮겨서 싹이 트게 하는 분산자 역할을 본의아니게 수행하곤 한다.

이러한 생활패턴을 보면 청설모보다 다람쥐가 더 알차고 조직적인 삶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